

‘사람이 온다, 미래가 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2호 발표 4차 산업과 벤처스타트업으로 ‘경제 혁신’ 유력 IT기업 임원, 스타트업 CEO 두루 역임한 4차산업 전문가 ‘혁신경제리더 이재성’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12월 14일(목) 10시,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솔테크 고문이자 前 엔씨소프트 전무이사 출신인 이재성 씨(53세)를 더불어민주당 인재로 발표한다.

부산항 부두 노동자의 막내로 태어난 이재성 씨는 부산에서 초중고(동일초, 부산서중, 부산중앙고)를 졸업했다. 포항공대, 부산 고신의대, 서울대 등 명문대 3번 합격이라는 눈 여겨볼만한 타이틀도 보유한 인물로 마지막에 입학한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했다.

이재성 씨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수성가한 기업인의 롤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대 졸업 후 당시 대기업인 이동통신회사 한솔PCS(IMF 이후 KT그룹으로 합병)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나 도전적인 일에 뛰어들고 싶어 2002년 벤처회사인 넷마블로 이직한다. 넷마블은 유료화 서비스 도입 첫해에 매출 156억원의 대성공을 거두게 된다. 그 과정에서 요금설계 및 시스템 기획 경험을 갖춘 이재성 씨의 활약이 돋보였는데 이재성 씨는 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다.

이후 이재성 씨는 엔씨소프트 전무, 엔씨소프트서비스 대표, NC문화재단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임원 경험만 15년을 거치며 국내 IT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엔씨소프트 임원 시절에는 프로야구 제9구단 NC다이노스 창단의향서를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직접 제출하였고,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 시절에는 국내 최대 게임쇼인 ‘지스타(국제게임전시회)’의 부산 개최를 이끌어내며 부산을 게임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울러 이재성 씨는 4차산업 스타트업 경영에서도 역량을 한껏 발휘해왔다. 비대면 교육 솔루션을 자체 개발한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퓨처스콜레에서 이사회 의장, 자율주행 스타트업 기업인 새솔테크 대표이사(CEO)를 역임하며 두 회사 모두 초기 투자유치에 성공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새솔테크의 경우 대표이사로서 직접 IR 활동에 나서 LG전자를 비롯한 우수 기업으로부터 초기투자를 받는데 성공하는 등 비전제시와 소통능력을 두루 갖춘 인물임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이재성 씨가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넘나드는 4차 산업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춰 우리나라 혁신경제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이유다.

한편 이재성 씨는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사회공헌활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임해왔다. 특히 부산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기지 1968 초대 기지장(센터장)을 맡아 부산 동서 간 교육격차 해소에 앞장섰으며, 부산문화재단 이사, (재)마리아수녀회 등기이사 등을 역임하며 고향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역격차 해소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오늘 행사에는 이재성 씨를 인재로 추천하는 소년의집 출신 대학생 A씨의 특별한 편지를 소개하는 순서도 준비되어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재성 씨는 수년간 소외아동 보호기관 후원에도 힘써왔다. 편지를 작성한 A씨는 청소년기부터 이재성 씨로부터 지원의 손길을 받아왔고, 현재는 의료 취약계층을 돕는 디지털 의료기업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이 되었다. A씨는 “이재성 대표님께서 삶을 통해 제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저도 어려운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전하기 위해 멘토로서 활동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환하게 지어주셨던 웃음과 따뜻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이재성 씨는 정치를 결심하게 된 이유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기업의 지속성장 여부는 연구개발을 통한 미래지식과 기술자본의 축적에 달려 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이 삭감되고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차산업전문가로서 현장경험과 실행 능력을 토대로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온 힘을 쏟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1> 이재성 프로필

<붙임 2> 이재성 인재 소개

□ 일반사항

- 1970년 부산 출생(53세)
- 부산 동일초등학교 졸업
- 부산 서중학교 졸업
- 부산 중앙고등학교 졸업
- 포항공대 물리학과 중퇴
- 부산 고신의대 의예과 중퇴
- 서울대 계산통계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KTF(前 한솔PCS) 근무 ('98~'01)
- 넷마블 이사('02~'04)
- CJ인터넷 이사('04~'06)
- 엔씨소프트 전무('13~'14)
-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전무('14~'18)
- 러기드코리아 대표('19~'19)
- 알로이시오기지1968 기자장('19~'21)
- 퓨처스콜레 이사회 의장('21~'21)
- 새솔테크 대표('22~'23)
- 새솔테크 고문('23.~)



부두노동자의 막내아들이 명문대에 3번 합격하게 된 사연

이재성은 부두 노동자인 아버지 아래서, 부산에서 나고 자라 동일초, 부산서중, 부산중앙고를 졸업했다.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꿈을 잃지 않도록 지지해 주신 부모님 덕에, 학창 시절 ‘수학통’으로 불렸던 그는 포항공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다.

하지만 ‘학생의 사회활동 참여 전면 금지 서약서’를 요구하는 대학 정책에 반대하다 학교를 못 다니게 됐다. 다시 입시를 준비하여 고신대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의학은 적성에 맞지 않아 학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 결국 동기보다 3년 늦은 나이에 서울대학교 계산통계학과에 입학하여, 경제학 부전공으로 졸업하였다.

안정된 대기업을 버리고 주도적 환경에 도전한 ‘벤처 체질’

1997년 대학 졸업 후 이재성의 첫 직장은 한솔PCS라는 신생 이동통신회사였다. 요금제 설계와 고객만족 시스템 기획 업무를 맡았다. 하지만 회사는 IMF를 전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KT에 합병되고 만다.

하루아침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직장인이 되었지만, 공기업적 조직문화 아래서 평생을 일할 자신은 없었다. 안정보다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심한 그는 대기업을 포기하고, 당시 설립 2년차의 신생 벤처기업, 넷마블로 이직을 결정했다.

넷마블, 엔씨소프트... 몸담은 회사마다 ‘초고속 승진’으로 인정받은 능력

넷마블에 이직한 2002년, 넷마블은 천만 명 이상의 무료고객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게임 자체의 매출은 0원인 기업이었다.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유료화 전환을 위한 요금설계 및 기획·운영 부문의 인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재성의 경험과 능력은 회사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유료화 첫해 넷마블은 156억원 매출이라는 성공을 거뒀고, 이재성은 입사 1년만에 이사로 초고속 승진하여 사업기획 및 관리 총괄을 맡았다.

하지만 몇해 지나지 않아 넷마블도 대기업인 CJ그룹에 인수되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펼칠 환경은 벤처기업 시절만 못해졌다. 다시 결정의 순간이었다. 2006년, 엔씨소프트가 인기 게임 <리니지>의 명의도용 사건으로 위기를 맞았던 때였다. ‘소방수’를 찾던 김택진 대표에 의해 소통 및 전략 부문의 전문가로 스카우트된다.

이재성은 기업의 과오에 대한 빠른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를 위한 체계 정비를 담당하며 사태를 모범적으로 마무리짓는다. 이 공로로 입사 2년만에 상무로 승진하였다.

프로야구 제9구단 NC다이노스 창단 주도

2010년에는 엔씨소프트의 신생 프로야구단(프로야구 제9구단) NC다이노스 창단을 주도했다. 13년 전만 해도 게임산업이 지금처럼 크지 않을 때라 엔씨소프트의 프로야구단 창단은 사회를 놀라게 했다. 그때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창단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당사자다. 창단 10년만인 2020년에 NC다이노스는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를 모두 우승했다.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를 부산으로 가져온 주역

이재성은 엔씨소프트의 상무·전무이사로서 게임문화재단 이사와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며, 대한민국 게임업계를 대표하여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게임산업협회의 지스타 담당자로서, 기존에 경기도에서 열리던 게임쇼 ‘지스타’의 부산 이전개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에서 여는 행사에 우려했지만 굴하지 않고 뜻심으로 밀어붙인 결과, 부산광역시의 지원과 부산시민들의 기대하에 결국 큰 성공을 거둔다. 이후 지스타는 오늘날 명실공히 국내 최대의 게임쇼이자 부산의 대표 브랜드로 남아 있다.

Closing the Gap. 격차 해소를 위해

Closing the Gap. 격차 해소는 이재성이 좋아하는 슬로건이다. 엔씨소프트문화재단 상임이사 시절, 발달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기획하여 ‘휴먼테크놀로지 어워드 2016’ 대상을 수상했다.

엔씨소프트의 사회공헌활동을 총괄하면서, 부산지역의 대표적 아동양육시설인 ‘소년의집’과 인연을 맺게 됐다. 단순한 회사 업무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소년의집 시설운영위원을 맡으면서 원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보고 배울 어른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꺼이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준 ‘키다리 아저씨’다.

기업을 그만둔 후에도 키다리 아저씨는 소년의집을 떠나지 않았다. 이재성은 고향으로 돌아와 소년의집 학원이 운영하다 폐교된 알로이시오 중·고교 자리에 새로 설립하는 창의교육센터 ‘알로이시오 기지 1968’의 초대 기지장을 맡았다.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뎠던 서부산 지역 청소년들도 4차산업시대에 어울리는 창의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설계를 총괄했다.

이재성의 끊임 없는 도전은 ‘현재 진행형’

15년의 임원 생활 뒤에는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신생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비대면 교육 스타트업인 ‘퓨처스쿨레’의 이사회 의장을 역임하는 한편, 자율주행 스타트업 ‘새술테크’ CEO를 맡으면서 스타트업 현장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갔고, 최근에는 대학의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을 위한 차량·사물통신(V2X) 보안솔루션 업체인 새술테크는 창업 1년만에 중소

벤처기업부 TIPS(창업발굴육성) 지원기업에 선정된 쾌거를 이뤘고, LG전자 등 주요 기업의 초기투자 유치를 성공시킨 촉망받는 벤처기업으로 키워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늘 지역과 계층의 격차를 줄이는 가교 역할을 꿈꾼 이재성. 삶의 변곡점마다 더욱 과감한 도전을 선택했던 그가, 이제 고향 부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혁신경제 성장을 위해 더 큰 공헌을 하고자 한다. 4차산업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현장경험과 비전, 리더십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인재다.